연꽃마을, 수좌스님들 노후복지 나선다

3월 31일, 선원수좌복지회와 MOU
수좌스님들 안정적 노후 돕기 위해
협력하며 다각 지원방안 모색키로
원상 스님 "각현 스님 뜻 잇는 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연꽃마을이 3월 31일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수좌 스님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약속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이사 원상)이 수좌 스님들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에 나선다.

연꽃마을은 3월 31일 용인 연화사에서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대표이사 의정)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간병과 요양이 필요한 수좌 스님들을 연꽃마을이 수탁 운영하는 용인노인전문요양원에 모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수좌 스님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기관 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공동사업 기획 및 협력하기로 한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대표이사 의정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일오 스님, 연꽃마을 대표이사 원상 스님, 용인노인전문요양원장 원범 스님 등이 배석했다.

이번 협약은 연꽃마을 2대 대표이사 각현 스님(1944~2014)의 원력에서 시작됐다. '복지 화신'으로 불렸던 각현 스님은 1990년 연꽃마을 이사장을 맡아 25년간 헌신했다. 무엇보다 스님은 '노인이 모셔지는 사회, 노인이 공경받고 존중 받는 사회'를 지향하며 효 사상의 사회화에 가치를 두고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대했다. 스님의 원력으로 연꽃마을은 노인전용의원, 무료양로원, 고령자 재취업교육,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등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쳤다.

출가 후 특히 노인복지사업에 진력을 다해 온 각현 스님은 일생을 수행에만 전념해 온 선원 수좌스님들의 노후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에 선원수좌회 의정 스님과 수좌스님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2014년 입적하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각현 스님의 상좌로 2019년 연꽃마을 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원상 스님은 어른 스님의 원력과 유지를 받들기로 결심, 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 양기관의 업무 협약으로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수좌 스님들은 누구나 용인노인전문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좌스님들에게 제공될 용인노인전문요양원 전경.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대표이사 의정 스님은 "평생을 수행한 수좌들을 위해 마음을 내준 연꽃마을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전국 수좌들이 보다 안정적이 노후를 보낼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꽃마을 대표이사 원상 스님은 "용인노인전문요양원은 각현 스님의 원력이 빚어낸 결실이자 불교계 최초의 무료양로원"이라면서 "그 뜻을 잘 기려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용인시 처인구에 개원한 용인노인전문요양원은 대지면적 1만964㎡(3316평), 건축면적 2509㎡(760평)면적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다. 1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기원"

조계종, 종단협 등 논평 · 성명 발표 잇달아

조계종 등 불교계와 종교계가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기원하고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4월 5일 발표한 논평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은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하는 세계 7대 물류 중심 도시이며, 천년고찰 범어사를 비롯한 전통문화와 산업화 이후 발전한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적으로 독특한 문화 도시"라며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이어 온 대한불교조계종의 모든 사부대중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개최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평화와 상생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조계종의 모든 사부대중은 우리나라 모든 종교인들과 합심해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한 기도 정진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이하 종단협)는 4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한마음으로 염원한다"고 기원했다.

종단협은 성명에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유치를 준비 중인 부산 세계박람회는 IT강국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랑스러운 한류문화와 전통문화 강국의 면모를 전세계에 알리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불교계 회원종단의 전국 16000여 사찰에서는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국민이 염원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도하겠다"고 응원했다.

불교를 비롯한 7대종교 지도자 모임인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이하 종지협)도 4월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경제 · 문화 올림픽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종지협은 "부산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면 올림픽 · 월드컵 · 등록 엑스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된다"면서 "2030 부산 엑스포는 저출산 · 고령화 · 저성장으로 힘든 국가 경제의 활력을 가져오고 국민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4대 종교 제주4 · 3 추모재…"국가 폭력 없어야"

4월 3일, 서울 탐라영재관에서
사노위,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불교 등 4대 종교가 제주4.3 75주기를 맞아 4월 3일 서울 탐라영재관에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불교, 원불교, 천도교, 개신교 등 4대 종교가 제주 4 · 3 75주기를 맞아 4월 3일 서울 탐라영재관 11층 강당에서 '4 · 3 제75주기 추모제사 및 4대 종단별 추모의례'를 봉행하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서울제주도민회와 재경제주4 · 3유족회가 함께한 이날 의례는 △천도교 제주4 · 3희생자 위령식 △개신교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해결과 치유를 위한 추모기도회 △원불교 제주4 · 3 위령재 △불교 제주4 · 3 제75주기 추모재 등으로 진행됐다.

불교계를 대표해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이날 추모재에서 4 · 3 당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다 희생된 스님들을 비롯해 3만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남북의 평화를 염원했다. 사노위원 고금, 주연, 동신, 현성, 선우, 여등, 도승, 대각, 법정, 보현, 혜문, 시경 스님이 동참했다.

이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대표해 사노위원 시경 스님은 "더이상 이념대립을 통한 국민 갈라치기와 국가 폭력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 · 3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한 시경 스님은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을 통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한맺히고 억울한 삶이 드러나고 있고 유해발굴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이 75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만나고 있다. 드러나는 진실들이 기록으로 잘 남아 미래에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생명의 존엄함을 가르치시며 폭력과 살생을 금하고 자비를 중시하셨다"면서 "조계종 사노위는 제주4 · 3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4 · 3 당시 사찰로 피신해 온 주민들을 지키다 희생된 스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이념 대립 없는 사회, 생명이 존중받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도 동참자들은 올해 제주4.3 슬로건인 "제주 4.3 견뎌냈으니 75년 딛고 서노라"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어 제주4 · 3과 같은 국가 폭력에 의한 참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봉행하고 헌화했다.

한편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000년 6월부터 시작된 사건희생자 신고 접수 결과 1만 4532명으로 집계되었지만, 미신고 또는 미확인 희생자가 있어 실제로는 3만 명 이상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불교계는 4 · 3 당시 사찰로 대피해 온 주민들을 지키다 35개 사찰이 전소, 폐허됐고 스님들 15명이 총살, 수장, 고문 후유증 등으로 희생되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스님들의 경우 후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는 물론 물적 피해 역시 잘 알려지지 않아 진상규명이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다. 임은호 기자

동행, 튀르키예에 컨테이너 100동 지원

튀르키예 한인회와 업무 협약
400명 거주 컨테이너 설치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이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진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 주거 시설 100동을 지원한다.〈사진〉 아름다운동행은 3월 27일 튀르키예 한인회와 컨테이너 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2월 6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현재까지 약 5만 7000명이 사망하고 400만 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무너진 건물들을 복구하는데 1년에서 길게는 5년이 예상됨에 따라 아름다운동행은 재건 복구 전까지 이재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컨테이너 주택 100동, 약 4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컨테이너 주택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튀르키예 한인회에서는 주정부로부터 임시 거주 시설 지원을 요청받고 27,700㎡ 부지에 360가구가 살 수 있는 컨테이너 주택 단지를 준비 중이다. 사업 부지는 지진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하타이주 이스켄데룬시(Hatay Iskenderun)에 위치하며 '한국마을(KOREAN VILLAGE)'로 명명해 추진하고 있다. 한국마을이 들어설 하타이주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을 위해 튀르키예 군인들이 출발했던 항구도시로 대한민국과 인연이 깊은 도시이다. 이에 아름다운동행에서는 임시 컨테이너 주택 100동을 지원, 한국마을 건설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아름다운동행이 지원하는 컨테이너 주택은 거실과 방, 주방, 화장실로 구성됐으며 4인 가족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한 튀르키예의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추가로 에어컨과 순간온수기도 설치된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4월 말쯤에는 이재민들이 입주, 텐트보다 더 안정적인 컨테이너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임은호 기자